



제18호 태풍 '미탁' 이 한반도를 휩쓸고 간 3일 (왼쪽부터)해남의 논이 물에 잠겨 있다. 해남군 화산면 송평항 앞바다에는 김양식시설이 망가져 있고 완도군 완도를 한 주택가에서 침수로 뒤흔겨진 가재도구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 여수상포지구 특혜 권오봉 시장 '뒷짐'

감사원 감사서 위법 확인 불구 "전임시절 일" 보상문제 원론적 이야기만... 책임 회피 비난

여수시가 감사원 감사에서 '돌산 상포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후 처리에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그동안 지역 내 논란이 가중됐던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전임시장에게 전가하는 한편, 사후 처리에 대한 해결방안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3일 감사원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여수 돌산 상포지구 개발사업' 감사 내용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1994년 상포 매립지를 조성한 S건설은 전남도로부터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공유수면 18만㎡를 매립했다. 이후 20여년 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공유수면 매립지는 토지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

2015년 7월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G사가 매립지 가운데 일부를 100억원에 매입하고 인가 조건 이행 등 토지 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S건설과 계약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건설이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달리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준공 승인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G사가 S건설로부터 100억원에 토지 매입을 한 뒤 토지를 분할해 295억원에 매각해 195억원

의 차익을 남겼지만,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감사원 감사에 여수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동기가 전 공무원 등이 연결돼 '방침결정'을 받아 이뤄진 것이었다"며 "방침결정"의 의미는 "당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이뤄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또 여수시는 부당행정으로 발생한 민원과 사업 계획 수정 등 사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관련 공무원 인사 조치와 민형사 소송 대응만 언급했다.

이같은 여수시의 해명과 입장문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더욱이 상포지구 개발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보다 권오봉 시장 감싸기식 해명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수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는 것 역시 이례적이다"며 "행정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권오봉 시장이 상포지구 특혜 사후처리에 있어서는 뒷걸음질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현 시장 측근이 연루돼 경찰 수사 중인 여수 이순신 마린나 유타사업 특혜 논란부터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상포지구의 대한 조치 계획도 정치적인 아전인수로 비쳐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상포지구와 관련 이해자들과 소송 진행단계여서 향후 계획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없다"며 "구상권 청구와 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잠기고 무너지고...태풍 '미탁' 피해 눈덩이

주택 83가구·농경지 914ha 침수  
가로수 등 시설물 피해도 40여건  
병영성 성곽 붕괴...하늘길도 차질

제18호 태풍 '미탁'이 덮친 광주·전남지역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시설물 파손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달부터 엄습한 태풍으로 농어촌지역 곳곳에 적잖은 생채기를 입은 상태여서 미탁으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 놓인 지난 사흘간 시·도에는 최고 305mm 폭우,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3.4m 강풍이 몰아쳤다. 누적 강수량은 보성 305mm를 최고로 고흥 278.7mm, 무안 239mm, 장흥 229.3mm, 진도 216mm, 곡성 212.5mm, 여수 190mm, 광주 141.3mm 등을 기록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여수 간여암 초속 33.4m, 신안 가거도 27.3m, 완도 신지도 24.9m, 고흥 나로도 24.1m 등이었다.

이로 인해 완도 노화 58가구, 여수 초도 22가구, 목포 삼항 2가구, 고흥 도화 1가구 등 전남지역 83가구의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이들 지역에는 한때 시간당 38~89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피해는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에 집중됐다. 전남 전체 농경지(15만4,091ha)의 0.6%인 914ha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완도 201ha, 보성 190ha, 무안 130ha, 고흥 100ha, 여수 70ha, 강진 59ha, 장흥 45ha 등이다.

벼 도복(스러짐) 피해면적도 보성 480ha, 강진 132ha, 해남 110ha, 장흥 55ha, 신안 38ha, 고흥 20ha 등 846ha(전체의 0.5%)로 조사됐다.

강진 병영성 성곽 일부(24m)가 붕괴했고, 완도·진도·고흥·보성 등에서 도로 21개소, 장흥 두암 천 제방 일부(20m)가 유실됐다.

가로수·현수막·담장·공사장 가설물 등 시설물 피해신고도 40여건이 접수돼 응급 복구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경지를 비롯해 양식장 피해 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이날 오전부터 일부(25개 항로 35척)가 운항을 시작했다. 항공편도 차질이 빚어졌지만, 속속 정상 운항하고 있다. 전남 광주공항에서 36편 가운데 22편, 여수공항에서 14편 가운데 9편, 무안공항에서 17편 가운데 7편(국내 3편·국제 4편)이 결항했다.

광주공항에서는 이날 오전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4편이 지연됐다. 무안공항은 국제선 2편, 국내선 1편 등 3편이 결항했다. 여수공항은 14편 모두 정상운행 중이다.

한편, 태풍 '미탁'은 이날 오후 독도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소멸했다. 하지만 무등산·내장산·월출산·지리산·다도해해상 등 광주·전남권 국립공원 출입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다.

/김영민 기자

##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폐막...선언문 채택

"도시 위상 제고"...유엔 인권 프로그램 참여 결의

지난 2일까지 사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포럼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포럼선언문에는 지난달 27일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권고사항의 국제적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이 유엔과 함께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같은 인권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방정부 인권책임성과 시민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교육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

엔과 인권도시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포럼 전체회의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 개최와 국제인권교육센터 설립·운영 협조요청에 참가자들이 공감한 결과다.

광주시는 포럼을 통해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광주시의 세계적 인지도·위상 제고 ▲연구·교육 기능 강화 ▲시민·국내 인권활동가 참여프로그램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는 39개국 98개 도시

에서 인권도시 대표와 비정부기구(NGO)·전문가·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하며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폐회사에서 "올해는 국내외 인권기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명실상부한 인권도시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와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제2회 광주·전남 시도민 한마음 건강 걷기대회

특히 공연

몇 미터 앞에 두고 안채요 안채 가수 김상배의 다수출연

**한글날 특별 이벤트!**  
10월 9일 생일을 맞이하신 참가자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별도로 드립니다.

\* 접수기간에 사전 참가 신청을 하셔야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19년 9월 16일(월) ~ 10월 4일(금)
- 참가자격 :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나
- 참가비 : 무료
- 접수방법 - 이메일 : jndnnews@naver.com  
- 카카오톡 : jndnnews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기재)  
- 전화접수 : 062)720-1011, 1017

**일시** : 2019년 10월 9일(수) 오전 9시

**장소** :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구간 : 광주천일원)

**주최** : M 전남매일 **주관** : JM스포츠

**후원** : 

**경품행사**  
TV, 김치냉장고, 에어컨, 노트북, 세탁기, 자전거, 공기청정기, 비데, 믹서기 등 다양한 경품 마련

참가비 무료! 전원 기념품 증정!  
연예인 축하공연